

사회복지사, 너도 언젠가 도움 받을 날이 올게다

「나무」‘황혼의 반란’,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2008

「회색인간」‘디지털 고려장’, 김동식, 요다, 2017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 안토니오 알타리바, 길찾기, 2013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 카타리나 잉엘만순드베리, 열린책들, 2016

「오베라는 남자」, 프레드릭 배크만, 다산책방, 2015

요양원에서 탈출하는 어르신

스웨덴 작가 카타리나 잉엘만순드베리의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 주인공 메르타 할머니는 다이아몬드 요양원에서 지냅니다. 요양소 취침 시간은 8시, 간식은 금지, 산책은 어찌다 한 번.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요양소보다 감옥이 더 안락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을 잉여인간 취급하는 사회에 분노하며 합창단에서 함께 활동하는 친구 어르신들과 ‘혁명’을 계획합니다. “차라리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자!”

옛날에는 이 요양소에서도 노인들이 각자 작은 개인 부엌들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시설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면서 새로 온 주인이 이 개인 취사 시설을 없애 버렸다. 경비 절감 때문이었다.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

언젠가부터 요양원이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메르타 할

머니는 노인이 되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끝까지 자기 삶을 살고 싶다고 합니다. 범죄 뒤 카리브해 섬나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노인 요양소는 -적어도- 국가의 교도소에 적용되는 동일한 규정에 의해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

모든 요양소의 관리자는 요양소 내에 자격을 갖춘 인원이 일하는 독자적인 취사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신선한 재료들을 사용해 직접 음식을 조리하여 공급해야 한다. (...)

정계에 입문하려는 자는 남자든 여자든, 적어도 6개월 동안 노인 요양소에 와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

스웨덴 작가 요나스 요나손의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알란 할아버지도 삶에 별다른 감흥 없이 죽는 날만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기 싫어 요양원에서 도망칩니다. 알란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기가 없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느니 차라리 세상을 실컷 돌아다니다 죽는 게 훨씬 낫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로 흥미로운 건 요양원이 어르신들에게 어떤 의미인지입니다. 도대체 요양원은 어떤 공간이기에 끝까지 피하고 싶은 곳이 되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은 스페인 내전을 겪은 저자 안토니오 알타리바의 아버지 이야기를 만화로 풀어냈습니다. 스페인 내전과 프랑코 독재를 관통하는 주인공의 삶. 그 시절에 살았던 뜨거운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나키스트가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삶을 불태웠던 주인공 안토니오 할아버지도 안락해 보이는 스페인 어느 요양

원에서 스스로 창문 밖으로 몸을 던져 죽음을 택합니다. 존재의 상실 때문
입니다. 육체의 굶주림 따위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토니오 할아버지와 한
방 쓰던 손재주 좋은 할아버지는 옆방 어르신의 휠체어를 타기 좋게 개조
합니다. 하지만 요양원 관리인들은 규칙을 틀어대며 문제 삼습니다. 할아
버지 삶이 녹아든 온갖 공구와 재료를 쓰레기 취급하며 가져다 버립니다.
할아버지의 당연한 저항에 관리인들은 약 처방으로 위협합니다. 이런 일
들이 요양원 속 어르신들을 그저 ‘생존·연명’하기만 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책 속 스페인 어느 요양원은 규율과 처벌만이 존재하는 곳이
었습니다.

스웨덴 작가 프레드릭 배크만의 「오베라는 남자」에서도 악역은 주인공
오베 할아버지의 이웃을 요양원으로 데려가는 시설 직원입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좋은 서비스로 대접하는 시설에서 할아버지를 연명하게 하려
합니다. 할아버지 아내는 이에 저항하지만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더는 집에서 돌볼 수 없다며 무례하게 들이닥치
는 요양원 직원들을 동네 사람이 힘을 모아 쫓아내는 장면이 인상적입니
다. 사람살이 참맛을 이웃과 인정에서 찾습니다. 삶의 마무리를 가족과
가까운 이웃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주인공 오베 할아버지 또한 아내와
사별 뒤 자살하려고 했지만, 이웃 때문에 마음을 돌립니다. 그 이웃들 가
운데 큰 역할을 하는 이는 이민자입니다. 오베 할아버지의 자살을 막은 건
이웃의 정입니다. 이웃 속에서 역할을 찾습니다. 이로써 삶의 생기와 자
기 존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품위 있는 삶을 원해요. 품위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무언가
를 뜻하는 거고요.” 소냐는 그렇게 말했다.

오베와 루네 같은 남자들에게 품위란, 다 큰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뜻했다. 따라서 품위라는 건 어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었다. 스스로를 통제한다는 자부심. 올바르게 산다는 자부심. 어떤 길을 택하고 버려야 하는지 아는 것. 나사를 어떻게 돌리고 돌리지 말아야 하는지를 안다는 자부심. 오베와 루네 같은 남자들은 인간이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존재였던 세대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오베라는 남자」

메르타 할머니, 알란 할아버지, 오베 할아버지. 세 이야기 모두 복지국가의 좋은 모습이라며 많은 사회복지사가 견학까지 다녀오는 스웨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안토니오 할아버지까지. 어르신들의 천국일 것만 같은 유럽의 요양원에서 탈출하는 노인들. 이 책들 속에서만큼은 천국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곳에 세련된 서비스는 있을지는 몰라도 사는 맛이 없습니다.

탈출 너머 반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단편집 「나무」 속 ‘황혼의 반란’. 미래의 어느 날 프랑스에서는 이제 ‘노인’은 쓸모없는 잉여 인간이란 인식이 사회에 퍼집니다. 노인 출입 금지 식당과 카페도 생깁니다. 국가가 나서서 노인의 의료비를 삭감합니다. 심지어 군인들이 집으로 찾아가 노인들을 포획한 뒤 버스에 태웁니다. 사냥하듯 붙잡힌 노인들을 태운 버스는 음침한 외딴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한 명씩 독극물을 주입해 사망하게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제도까지 시행하는 사회 속에서 궁지에 몰린 노인들은 탈출하여 저항합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황혼의 반란입니다.

“오늘날의 인간은 늙은이들을 죽음으로써 마치 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가장 약한 구성원들을 가차 없이 제거해 버리는 쥐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쥐가 아닙니다. 인간은 서로 연대할 줄 알고 함께 어울려 살 줄 압니다. 만일 인간이 가장 약한 자들을 죽인다면, 인간의 모습살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노인을 배척하는 법률을 철폐합시다. 우리를 제거하기보다 활용할 생각을 하십시오.”

“노인 하나가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입니다.”

「나무」 '황혼의 반란'

죽음을 향해 달리는 버스에서 탈출한 노인들은 숲으로 도주한 뒤 동굴에서 생활합니다. 거친 생활로 동료들이 죽어가지만, 오히려 그런 삶 속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각자 자신이 잘하는 일로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해낼 때의 기쁨, 짧게 살아도 이것이 진짜 삶이라고 합니다. 척박해도 그 속에 역할이 있고 부족해도 능력을 발휘할 때 사람입니다. 노인들은 사회 속에서 사람대접 받고 싶었습니다. 존재를 인정받길 원했습니다.

숲속으로 도주하는 노인들이 하나둘 늘어갑니다. 이들이 단결하여 젊은 정부 군인들과 맞서 싸웁니다. 군인들도 삶의 경험이 많은 노인들의 저항에 고전합니다. 하지만 오랜 전투 끝에 결국 노인들은 하나둘 살해되고 몇몇은 잡히고 맙니다. 주인공 프레드 할아버지도 생포되어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정부의 노인 안락사 정책으로 결국 독극물 주사를 맞습니다. 최후의 순간, 자신에게 주사를 놓는 젊은 병사에게 말합니다.

“너도 언젠가는 늙은이가 될 게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실제로 프랑스의 어느 양로원을 방문한 뒤 받은 느낌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양로원이 그 의도와는 다르게 노인들에게는 끔찍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황혼의 반란은 어떤 양로원을 방문하고 난 뒤에 쓴 작품이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단편 세계(감옥, 정신병원, 도살장)가 내 작품에서는 종종 우리 현대 사회의 실상을 보여 주는 무대로 활용되었다. 「나무」 '황혼의 반란' 작가의 말 가운데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복지) 제도와 서비스가 당사자에게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현실 정치 속에서 우리 지향은 마땅히 복지국가를 향합니다. 그러나 복지국가가 유토피아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끝까지 자기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복지 '국가'는 이런 존재로 살아갈 만한 세상을 이루는 과정 정도로 이해합니다. '국가'에 어느 정도 책임을 요구하며 의무를 다하라고 하겠지만, 이 책들을 읽어보니 내 모든 걸 맡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누구와 생을 마무리할지도 스스로 정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좋은 제도 속에 살아도 불안합니다.

노인들만이 사는 시설에서는 노인들이 '하향 평준화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른의 지위에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역할과 관계를 상실한 노인들은 무료를 느끼기 마련이다.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박승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어르신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에서 시작

프레드 할아버지의 절규를 들으며 어르신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합니다. '황혼의 반란'에서 어르신을 모셔가는 요양센터 버스에는 '휴식·평화·안락'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에게 휴식과 평화와 안락을 제공하겠다는 이 버스의 종착점은 죽음입니다. 사회에서 쓸모없어졌다며 독극물로 노인을 죽이는 영원한 휴식.

우리 현장에도 어르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버스가 존재합니다. 그 버스

는 어르신을 인격적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어르신을 데려가 아이처럼 취급하고, 주는 대로 받으라 하고, 우는 아이 달래듯 이것저것 던져주는 어르신인 인격과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사업. ‘황혼의 반란’에서 독극물이 어르신의 육체를 죽였다면 우리 현장에서는 이런 일방적 복지 서비스가 어르신의 영혼을 죽일지 모릅니다.

최첨단 기술이 어르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지도 의문입니다. 어느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래에는 드론이 반찬 배달을 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자기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 더불어 살게 돕는 게 진보이고, 그렇게 일상에 녹아드는 게 발전입니다. 미래의 어느 때가 되면 임시로 이뤄져 온 복지 서비스가 삶에 스며들어 이제 스스로 만들어 먹고, 이웃과 나누고 함께하며 끝까지 삶을 이어가는 모습이 사회사업가의 이상입니다. 복지 서비스는 그대로 놓아두고 그 전달 방법만을 첨단 기기로 활용하는 걸 진보나 발전이라 본다면, 나 또한 그런 시스템에서 탈주하고 싶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인공지능 인형과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¹⁾

1)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인형 모습을 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소식이 이어집니다. 인형 모습의 인공지능으로 치매 예방? 외로움 해소?? 되묻고 싶습니다.

첫째, 평범한 사람 관계와 꾸준히 이어온 일상을 거드는 게 ‘예방과 해소’에 더 효과적일 겁니다. 둘째, 사람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본 건 아닐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용과 효율로 계산하여 빚어낼 일 같습니다. 셋째, 나와 내 가족의 삶은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다면 다른 이에게도 권하기를 주저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별인 일이라면 서운합니다. 사람 사이 관계를 잇고 인간성 회복을 향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아쉽습니다. 이런 기기라도 만들어 보급하려는 진정성을 믿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일에는 순서가 있듯, 사회복지사로서 해볼 만한 일들을 벌인 뒤에 나온 결정이면 좋겠습니다. 「한여름 날의 낭만잔치」(박세경·권대익, 구슬떼는실) 속 어르신들을 생각합니다. 삼삼오오 둘레 이웃과 때때로 만나 먹고 나누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서 삶을

김동식 작가의 단편소설집 「회색인간」에 실린 「디지털 고려장」을 읽었습니다. 최첨단 기술 도입이 정말 발전일까 돌아보게 했습니다. 좋은 기술이 도입되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어르신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선은 그대로인 채 그 ‘관리 기술’이 발전하니 쓸쓸한 미래가 그려집니다. 노인복지 현장의 발전이 ‘끝까지 나로서 누리는 삶’이면 좋겠습니다.

지구의 인류가 포화 상태에 도달했을 때, 정부는 데이터상의 가상 지구로 이주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했다. 가상 지구 따위로 이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미는 정책은 있었다. 비노동 인구인 노인들을, 요양원이나 노인정이 아닌 가상 지구로 이주시키는 정책이었다. 사실, 노인 부양 문제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골칫거리였다. 이미 많은 노인이 가족과 떨어져 독거 생활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도 많았다. 어차피 자식들과 떨어져 요양원 등에서 혼자 지낸 노인들이라면, 차라리 가상현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게 더 낫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다.

「회색인간」 「디지털 고려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을 늦추는 사람들은 늘어만 갔다. 가상 세계에 접속해 부모님의 모습을 살피는 빈도도 점점 줄어만 갔다. 참 신기하게도 똑같았다. 현실에서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던, 신경 쓰지 않던 그 모습들이, 가상현실에 모셔두고 똑같이 나타난 것이다. 혹자는 이 서비스를 한마디로 표현했다.

“마음속 죄책감에, 할 만큼 했다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 「회색인간」 「디지털 고려장」

어르신을 섬기는 현장에서 헌신하는 동료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뜻과

이어가고 싶습니다.

내 이야기가 실시간으로 녹음되어 텍스트로 만들어 쌓여갑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인공지능과의 대화. 오늘 무얼 먹을지 미리 짐작하여 말하고, 무얼 사고 무얼 할지 미리 안내합니다. 철학자 이반 일리치의 말처럼 이런 사회 속에서 인간은 ‘복지 서비스’를 유지하게 하는 숙주 정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복지 산업의 소비자로 추락하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열정과 그 수고를 낮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르신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에 따라 어르신을 섬기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일은 어르신을 정명(正名)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관점이 방법을 만들어 냅니다. 어르신을 돌봄과 부양의 대상 정도로 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은 채 여기에 결합하는 최첨단 기술이 두렵습니다. 어르신을 삶의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원로’로 본다면 완전히 다른 사업이 그려질 겁니다.

“노인 하나가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입니다.”

서울 어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김승철 선생님은 얼마간 어르신께 점심 도시락을 만들어 전하는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도시락을 전할 때마다 문 앞에서 어르신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의 건강을 기도했습니다. 바쁘고 차가 밀린다는 이유로 도시락만 덩그러니 놓아두고 돌아서는 이의 식사와 분명 맛과 영양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적어도 그 사업을 맡아 진행하는 사회사업가의 마음을 바르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그 일이 달리 보였습니다.

전남 어느 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 모두 모여 앉아 계신 그 앞에서 전 직원이 큰절을 올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르신의 인자한 눈빛들이 풀어진 마음을 여미게 했을지 모릅니다. 형식적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반복하면 물들기 마련입니다.

서비스로 도울지라도 이를 풀어내는 이의 마음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일이 됩니다. 진정 어르신을 위하는 일이 무엇일까 궁리합니다. 살아 계신 한 끝까지 당신 삶의 주인에게 돕습니다. 사회복지사라면 어르신을 어르신답게 섬깁니다. 살아오며 쌓아왔고, 살아가며 다져가는 여러 관계 속에서 어른 구실 어른 노릇 하게 거드는 일이 어르신다움의 핵심입니다. 사회복지사

라면 사회복지사다움을 지켜갑니다.

우리나라 어느 노인의 이야기가 메르타 할머니와 프레드 할아버지의 외침과 닮았습니다.

“남이, 힘이 센 자가 시혜로 해결해 주는 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노인이 다 보니 국가와 사회의 노인복지에 대한 요즘시각에 민감합니다. 노인을 부양할 젊은 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인구가 늘어나서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젊은이한테 부양해달라는 노인이 어디 있어요. 공동체 시절에 노인은 죽는 날까지 알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1주일 전까지 밭 매셨어요. 뭘 젊은 사람이 보장해줍니까. 오히려 노인들이 죽는 날까지 도시에 사는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있지. (...) 옛날 공동체에는 한 살부터 90살 노인, 미치광이, 장애인 다 있었어요. 소외시키지 않고 다 감싸고 살았어요. 굶어 죽이지 않고 같이 살았어요. 그게 자치적인 복지죠.”

「살림의 경제학」(강수돌, 인물과사상사, 2009) '참된 복지란 무엇인가' 가운데